

오리산업, 고통도 혁신의 기회 이다



사) 한국오리협회장 김만섭

역경은 언제 어디서든 찾아올 수 있다. 불교 경전인 《역경(譯經)》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군자는 지금 편안할 때에 있다고 해도 언제 위험이 다가올 지 모른다는 생각을 잊지 말아야 하고 지금은 존재해 있어도 언제 망할 지 모른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 그러므로 몸이 편안해질 수 있고 나라를 보전할 수 있다.”

역경을 미리 막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1997년 미국의 커뮤니케이션 이론가인 폴 스톨츠는 역경지수(Aversity Quotient)라는 걸 만들어 그 유형을 등반에 비유했다.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능력으로 난관에 부딪혔을 때 포기하고 내려오는 사람(quitteer), 적당한 곳에서 캠프를 치고 안주하는 사람(camper), 난관을 헤치고 극복하면서 전진하는 사람(climber). 우리의 오리산업은 어디에 속할까?

지난 6월 4일부터 6월 10일까지 협회 산하 종오리사업추진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GPS(Grand Parent Stock) 사업추진에 따른 원종오리 공급 협약(MOU)체결 협의 및 오리산업 현장견학을 위해 영국 체리밸리사와 프랑스 그리므드사 방문길에 올랐다. 현재 우리나라는 영국과 프랑스에서 PS(종오리)를 수입하고 있지만, 정작 두 나라의 수입회사에 대한 자세한 현황과 오리육종에 관한 제반사항을 제대로 파악한 적이 없었던 만큼 큰 의미가 있는 출장이었다.

5박 7일(1박은 기내에서...)의 빡빡한 일정에 맞춰 밤낮없이 동분서주하느라 일행 전부가 지쳤지만 기대 이상으로 많은 것을 보고 느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다. 체리밸리사와 그리므드사를 돌아보면서 유럽과 한국의 오리산업이 자연스럽게 비교되어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 최근 몇 년 새 우리나라 오리산업이 놀라울 만큼 빠르게 성장·발전해 주목받고 있기는 하지만, 여러 측면에서 아직은 100년 가까이 오리육종, 개량을 연구해 온 유럽보다는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들에 비견할 만큼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할까?

● 첫째, HACCP 기준에 맞는 시설 운영이다.

우리나라도 HACCP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여러 업체들이 이에 맞춰 설비를 새로이 정비하여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생산 환경을 갖췄으며, 안전한 오리고기 생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에 따라 도축에서 가공까지 HACCP 기준에 맞는 시설을 구비하여 위생적인 오리고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전국의 오리전문도축장 14개소 중 6개 도축장만 HACCP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 둘째, 오리육종사업의 조속한 추진이다.

누군가는 육종을 두고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라고 하는데, 일단 좋은 품종을 개발하게 되면 그동안 공들였던 긴 시간과 막대한 비용의 수십, 수백 배로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에 우리 협회 주관으로 GPS(원종오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고, 이번 출장에서 GPS공급 협약을 체결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언제까지나 비싼 외화를 소비하면서 다른 나라에서 GPS 또는 PS를 구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앞으로는 우리 스스로 우리 여건에 맞는 품종을 개발하지 않으면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다. 이를 위해서는 업계 뿐 아니라 정부에서도 그에 맞는 정책수립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그나마 우선 원종오리사업이라도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이번 기회에 오리산업 종사자 모두가 합심하여 본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해 본다.

또한 GPS사업의 본격적인 추진과 아울러 친환경 축산을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가 있어야 할 것이다.

●●● 마지막으로, 수입 냉동오리고기의 국내산 둔갑판매를 막아야 한다.

최근 들어 대만산 오리고기 수입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고 이것이 일시적 현상이 아님에 따라 암암리에 국내산 오리고기로 둔갑판매 또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우업계는 수입쇠고기를 국내산이라고 속여 팔 경우 벌금형을 선고하고 100㎡ 이상의 음식점에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알 수 있도록 표기하는 원산지 표시제를 시행해 수입 쇠고기의 둔갑판매를 원천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쇠고기뿐 아니라 전 축종에 대한 원산지표시제 시행과 수입축산물에 대한 유통경로를 정확히 파악하여 소비자보호와 함께 국내 오리 산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오리업계 종사자는 물론 정부당국의 철저한 확인과 단속을 촉구한다.

우리나라의 오리산업은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가장 높은 품목 중의 하나다. 지금까지 양(量)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종오리 생산체계 구축 미흡, 농가 스스로의 방역 및 경쟁력 제고 의지 부족, 상인 위주의 유통체계, 위생적인 도축 및 가공시스템의 낙후 등 질적인 면에서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내지 못해 왔다.

그러나 국내 오리산업이 오리부화업과 종오리업의 질병 예방과 품질관리를 통한 품질과 가격경쟁력을 높이고, 양(量)뿐만 아니라 질(質)적인 발전이 본격화되어야 할 것이다.